

오직 (사도행전 4:1-12)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오직을 해야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되지 않고 50대 50, 때로는 양다리의 모습을 하게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오직에 눈 열리면 세상 정복한다. 우리의 문제도 정복하고 내 인생도 정복하고 그렇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있기 바란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RU 전도제자반 엔세나다에 잘 다녀왔다. 전에는 톨루카 지역에서 25명 왔었는데 이번에 10명 정도 줄었다. 아무래도 비행기 사고 일도 안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RU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서 포럼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점심식사 후에 돌아가면서 포럼을 하는데,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었다. 그 중에 이제 한분이 멕시코 남부지역에 있는 마우릴리오라는 목사님이 계시다. 이 분은 저와 하는 성경공부에 항상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는 분이다. 이분이 따님을 데리고 왔는데 따님이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올곧적이었다고 한다. 그 중에 엄마가 더 심했다고 한다. 너무 심해서 이제 카운슬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다. 카운슬러가 너는 다른 도시에 가서 살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따님은 멕시코시에 살고있는 것이다. 그 동안에서 자기 집안에서 변화된 것을 이야기 했는데, 그러다가 그 목사님 차례가 되어서 물었다. 복음안에 들어와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이 분은 복음 안에 들어온지 진짜 얼마 되지 않았다. 성경공부 한지가 몇 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차례가 되는데 말을 하려다가 말을 못 잇고 울고 있는 것이다. 말은 안해도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옆에 톨루카에서 같이 온 성도 몇 명이 또 따라서 같이 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옆에 레이크 전도사도 있었는데 전도사님도 같이 울었다. 그래서 참 감사했다. 우리가 처음 한국에서 초창기에 훈련 받을 때 우는 분들도 많았다. 어떤 목사님은 1차 합숙훈련 가서 3박 4일동안 메시지 들을때마다 울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몰라서 내가 죽어라고 기도해도 안되고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되었던 것이었다 하면서 울었다. 너무나 분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이걸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냐 하면서 운 분들도 많이 있다. 그 생각이 나서 참 감사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은 포럼 못했다. 시간도 되고 그래서 가야 돼서 다시 듣지는 못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나간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복음 받고 여러 가지 변화, 치유 이런것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온 것 아니겠는가? 오늘도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을 바란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다. 예사로 생각하면 안된다.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관심이 많다. 그런데 복음을 언약으로 잡고 전달하는 중에,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개인기도가 많이 등한시된 것 같다. 전에는 복음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기도가 중요했다. 믿고 나면 바로 기도지 복음이 뭐냐 이런 거 별로 없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잘 안되서 안타깝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안되나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자연 기도가 제일 관심의 1번 이었다. 그런데 복음, 언약, 누림 이런 단어가 오는 사이에 개인 기도가 2등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 24시 되기를 열망하는 민족들이다. 그런데 24시 되기 전까지는 24시 되면 기도하고 그 전에는 기도 안한다 이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24시 되기 전에도 개인 기도가 많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복음이 움직인다. 기도를 가지고 복음을 누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분의 간증이다. 이 가정이 서울에서 사는데 지방에 불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내려갔다. 불일을 다 마치고, 이 분이 차를 타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차를 타지 말라는 것이었다. 가족들이

다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차를 타지 말라는 소리가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자기 소리인지 구분이 안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타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내가 만일 어머니에게 시외버스 타고 가겠다고 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겠다고 기도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힘들고 오래가고 괜히 돈들이고 시외버스타고 가라고 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분은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갔다. 집에 와서 보니까 가족들이 아직 안 온 것이었다. 조금 있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교통사고가 난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많이 다쳤다.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났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가족대표로 진술을 해야 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차가 있는데, 자기가 그 차를 탔으면 조수석에 탔을 것인데, 상대차가 거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분이 그 부모님이나 동생은 병원에서 다쳐서 누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고 한다.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무릎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했다고 한다. 이름을 부르면서 니가 어릴 때부터 많이 쌓아 놓았던 그 기도를 니가 찾아서 쓰게 될 것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 분이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많은 응답도 받았다는 간증이였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전에 별 생각 없이 쌓아놓았던 기도가 써먹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꼭 24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것이라는 것이다. 언약과 함께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언약으로 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1. 오직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요한복음 14: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에 비하면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강하게 이야기 하였다. 핍박을 하니깐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만한 이름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느냐는 것이다. 베드로는 3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였다.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뛰기도 하고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3천명 돌아왔고 오늘 본문은 남자만 5천명 돌아왔다고 하였다. 6절에 의하면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문중이 전부 모여서 제자들을 핍박을 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다고 해서 그 권세가 꺾이는가? 안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는데도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 역사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다. 왜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 인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하는 사람이었다. 10절에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의 기록이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 절대 안된다. 대부분 성경 읽을 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 이야기를 쓰다가도 항상 포인트가 있다.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의 설명, 기록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눈 열려야 한다.

원죄의 저주를 당해서 인간이 이렇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답

은 한 개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오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 하나 뿐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인정 안하면 다르게 살면 믿어도 손해 많이 본다. 이것이 마음에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한다. 대부분 안되어 있다. 우리가 진짜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한 개 딱 있다.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여기에 답이 나면 문제가 상관없다. 문제가 계속 오는 이유가 무엇이나면 여기에 답을 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이다. 여기에 답 나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증인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들을 막을 수도 있다. 아주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신다. 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답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누려서 증인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골탕 먹이지 않으신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착각도 하지 말아야 하고 오해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답되기를 바란다.

2.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증거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냐고 말했다. 베드로는 본래 자기가 답난 것이 그랬다. 그래서 12절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발견 되어야 한다. 발견이라는 것은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정신 딱 차리고 생각해봐라. 그냥 메시지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멈춰서서 생각해봐라. 진짜냐 이게. 베드로의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뒤집어 졌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한다. 100년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까? 누구든지 받고 싶은 응답일 것이다. 그 출발이 뭐냐면 오직이다. 그리스도가 50%가 아니고 오직인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 하나로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나는 내 인생을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때나 말씀을 드릴때는 오직 그리스도 맞다. 그런데 살때는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살고 많이 그런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생명을 건다는 것이다. 내 생각이나 사상이나 일이나 언약이 전부다 그리스도로 한다는 것이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딱 꽂혀야 한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 뜻을 정한 것이 빈틈에 없었다. 무엇에 대해 뜻을 정했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제사에 대해서 뜻을 딱 정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안 먹는다고 하였다. 이것이 다니엘의 뜻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100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을 내야 한다. 이런 자세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될 수 있다. 딱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고 어느날 하나님이 답을 딱 내주실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한번씩 가다가 오직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일어났던 일의 기록이 아니고 약속이다. 너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가 오직이면 베드로같이 응답 받는다. 이런 약속이다.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 받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면 너도 증거하면 역사 나타난다. 니가 만일 오직 하고 증거하면 사도같은 역사 일어날거라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너도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증

거해라. 증인되려면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 그러면 제자도 일어나고 사도들처럼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일어나는 복음 운동이 계속 확장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다. 일어난 일의 단순한 기록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하니까 너도 베드로처럼 오직만 해라. 그 말이다. 그러면 너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 믿는가? 믿어야 한다. 언약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을 계속 고백하면 반드시 어느날이 온다. 거기에 답나는 어느날이 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어느날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힘내고 다시 시작하라는 그 말씀이다. 하나님 자녀는 본래부터 매일 새출발이다. 어제는 어제 아닌가? 어제에 잡혀 있으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 어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날을 시작해야 한다. 본래 이렇다. 어제의 실패는 오히려 발판이 된다. 이것은 신자의 권세이다. 거기에 잡혀서 오늘을 망하고, 내일을 망하는 일은 신자에게는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베드로 같은 축복, 그 약속이니까, 지금 캠프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가 진짜 일어나기 바란다. 이것이 사도행전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 니 인생의 올무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성전 미문의 앓은뱅이는 그 자체로 인해서 모든 것에 올무가 되었다. 그리스도 만나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갑자기 회복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그리고 차츰차츰 회복될 수도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그리고는 결국 어디가는가? 정복하는 것이다. 답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 이다. 그리고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우리 이런저런 문제 사건 있다. 필요 없다. 성경의 답은 니가 그리스도만 오직 해라.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면 살아난다는 그 말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을 대표적으로 해서 항상 개인의 언약에 오직했다. 시대적인 응답을 다 받았다. 다른 것에 절대 눈 돌리지 않고 이 언약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다. 때로는 위기도 있었다. 때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언약에 대해서 생각 변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전부 승리했다. 성경에 왜 이런 것을 써놨는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섯 달란트일지 두달란트일지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한달란트는 아니다. 1.5달란트, 그러면 1.5달란트 남기면 된다. 한 달란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승리하고 정복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확실하다. 오직 이 언약,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하는 것이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얼마나 되어질지, 언제 되어질지 그것은 우리와 상관 없다. 한 개 상관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오직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증거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하기 바란다. 이것은 성경전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다. 구약에도 그렇다. 구약에도 약속의 피제사에 오직 한사람은 전부 승리하고 정복했다. 신약에는 그 약속의 피제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들은 전부 승리하고 정복하였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동일한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죽어도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결론 나기 바란다. 진짜인가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 필요하다. 이게 목상이다.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조용히 생각해보기 바란다. 진짜 그리스도가 답인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가?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인가? 생각해보고 결론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 바란다. 그러면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